



전역, 사회로 나아가는 성공의 길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창업지원** 1:1 전담상담사 배정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전직지원금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이력서·면접 클리닉 등
- 워크숍** 취업역량강화, 변화관리, 특강, 창업워크숍 등
- 직업훈련** 위탁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등
- 사이버 교육** 자격증 취득 관련 등 취·창업에 필요한 강좌 제공
- 멘토링 상담** 성공 제대군인 멘토 온·오프라인 실전 경험 전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오십시오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전역했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www.vnet.go.kr) 회원가입 필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80, 1103호
(의정부동, 센트럴타워)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 3층
(방배동, 양지빌딩)

인천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1층
(도화동,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경기남부 제대군인지원센터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별관 2층
(영화동, 경기남부보훈지청)

광주 제대군인지원센터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1층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강원 제대군인지원센터
강원 춘천시 소양강로 10, 915호
(후평동, 춘천B&I지식산업센터)

대전 제대군인지원센터
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5층
(월평동, 대전지방보훈청)

대구 제대군인지원센터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저층부 3층
(대곡동,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부산 제대군인지원센터
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4층
(중앙동4가, 부산지방보훈청)

경남 제대군인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05, 2층
(서성동, KT서성빌딩)

군 인 친 구
1666-9279

전국 10개 센터 대표번호

리:스펙 제대군인 2024 November Vol.225

리:스펙 제대군인

너나들이

: 서로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굿 JOB 굿 LIFE

외할아버지의 땀감

성공 길라잡이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기상예보사
김대인 예비역 공군 대위

Vol.225
2024 November



국가보훈부
YouTube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너나들이

: 서로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몇 년 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솔직한 단어들로 스스럼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이. 겹겹이 쌓인 친밀함과 두터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한 관계입니다. 실 틈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에서 때때로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거나 서먹해지기 마련이지만, '너나들이'의 관계는 시간이 흘러도 한결같은 편안함이 유지됩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울고, 웃고, 행복했던 시간을 함께 보낸 것만으로도 엄청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필요할 때는 솔직한 충고도 아끼지 않는 '너나들이'.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자 힘이 되는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Contents

통권 225호
 발행일 2024년 11월 1일
 발행처 국가보훈부
 발행인 강정애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기획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일자리과(044-202-5731)
 기획·디자인·인쇄 동아문화사(053-252-9060)
 발간등록번호 11-1830000-000002-06

f www.facebook.com/mpvakorea
 y www.youtube.com/user/mpvakorea
 i www.instagram.com/bohun_story
 x x.com/hun2day
 b blog.naver.com/mpvalove

QR코드를 통해 <리:스펙 제대군인> 웹진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리:스펙 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v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Again my Life 라

새 삶의 시작을 응원

너나들이
 : 서로 허물없이 말을 건네는 사이

06 매치포인트
 한적했던 공간에서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이 된 곳
 청주 동물원 & 아사히야마 동물원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08 리:스펙 히어로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김대인 예비역 공군 대위

12 선배의 노하우 Zip
 큰 꿈은 깨진 조각마저 크다
 *김준식 예비역 공군 중사

16 굿 JOB 굿 LIFE
 외할아버지의 땀감
 *김정희 예비역 육군 대위

Change Work 일

제2의 업을 찾는 방법

18 지속 가능한 미래로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한국후코꾸(주)

22 성공 길라잡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에 최선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4 Zoom IN
 생성형 시가 도와주는 마케팅,
 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바람
 *스튜디오랩

26 방구석 1열 오피스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알아보는
 *근로자 문화예술제

28 꿀팁전당포
 Passion & Fashion! 나만의 패션 스타일업
 *패션 유튜브 추천

30 백 투더 잡
 섬세한 테크닉으로 미각을 사로잡다
 *숙수 & 셰프



Better Live 락

즐거움이 있는 삶

32 여행 보일지도
 포화 속에 꽃핀 예술 도시
 *경기 양평

36 무엇이든 물어보살
 글을 잘 쓰고 싶다고요?
 *전병석 시인, 교육자

38 전국군대자랑
 통신보안! 통신보안!
 *염봉준 예비역 육군 소령

40 오늘도 ESG
 지구를 생각하는 이달의 기념일
 *11월 29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42 다 함께 PLAY
 책으로 낭만 한 스펀
 예술의 아름다움을 담은 추천 도서

Cheongju Zoo & Asahiyama Zoo

한적했던 공간에서
사람들이
찾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곳이 된 곳

청주 동물원 & 아사히야마 동물원

동물원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너나들이 친구끼리 어릴 적 소풍을 갔던 기억과 동물들과 함께 추억을 쌓은 곳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반면, 동물을 가둬두고 학대한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런 양면성을 가진 프레임을 벗어나, 동물에 대한 진심과 돌봄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청주 동물원과 일본의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글 한재동 작가 겸 칼럼니스트

동물에 대한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다, 청주 동물원

청주 동물원은 1997년 개원한 청주의 공영 동물원입니다. 호랑이, 늑대, 일본원숭이, 수달, 두루미 등 약 70여 종의 동물이 있는 특별한 것 없는 동물원이었어요. 동물원이 변화하게 된 것은 김정호 수의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2001년 김정호 수의사가 처음 청주 동물원에 들어왔을 당시에는 전국에서 호랑이사가 가장 작은 동물원이었다고 해요. 당시 모든 동물원들은 사람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네모형태의 경사가 진 콘크리트 동물사(動物舍)로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도 쉽고, 사육사가 안전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곳에 갇힌 동물들은 자기 배설물을 먹고 자해를 하는 정형행동(좁은 곳에 갇힌 동물들이 반복되는 이상행동을 하는 것)을 보이게 됩니다.

2017년 김정호 수의사가 진료사육팀장이 되면서 청주 동물원은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해요. 500여 마리 동물들의 사육을 책임지며, 동물원 운영을 결정할 권한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김정호 수의사는 청주 동물원을 동물의 입장에서 더 편안한 동물원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2018년 웅담 채취용 사육곰을 동물보호단체가 구출하자 청주 동물원에서 보호하기로 자원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오히려 동물원 내부에서도 좋은 반응이었다고 해요. 2023년 김해의 민간 동물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학대당하고 있던 사자 '바람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고, 청주 동물원은 '바람이'를 데려오기로 합니다. 7년간 비좁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있던 '바람이'는 흙과 바람이 있는 청주 동물원에 와서야 건강을 회복하고 사자



청주동물원 _ 출처, 경향신문



청주동물원 바람이 _ 출처, 충청일보

다운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리고 '바람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청주 동물원에 대해 알게 됩니다.

청주 동물원에서는 원하는 동물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동물들이 쉴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컨디션이 좋지 않은 동물은 전시보다 보호를 우선합니다. 수명을 다한 동물들을 추모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동물을 위한 진정성에 많은 사람들이 청주 동물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2024년 청주 동물원은 사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 동물의 질병 및 안전 관리, 종 보전과 증식의 역할을 하는 국내 1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돼요. 우리나라 동물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폐쇄 직전의 작은 동물원에서 일본 최고의 동물원으로, 아사히야마 동물원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있는 일본 북부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시는 약 30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여름에는 3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로 관광객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1967년에 개장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1996년 연간 관람객수 26만 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본의 96곳의 시립동물원 중 가장 운영이 어려운 동물원으로 지목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폐원까지 고려하던 때, 동물원 사육반장이던 고스게 마사오가 동물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동물원이 없어진다는 것은 직장이 사라지는 것 이상을 의미했어요. 정들었던 야생 동물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인기 없는 동물은 안락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스게 마사오는 폐쇄만은 막아달라고 지역의원들을 설득했어요. 마침내 시의회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망해가는 작은 동물원이 처음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 투자규모와 위치도 대도시 동물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죠.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시설 확장이나 희귀 동물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학습회'라는 사육사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요. "동물들이 움직이지 않고 자기만 해서 시시하다"라는 관람객의 의견에, 동물이 철장에 갇힌 무기력한 모습이 아닌



아사히야마 동물원 북극곰 _ 출처, 홋카이도시



아사히야마 동물원 _ 출처, 홋카이도시

자유롭게 뛰어놀며 생기 있는 동물원을 만들기로 합니다. 전시하는 방법에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염소와 토끼 등 온순한 동물을 관람객이 만지며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어린이 목장', 북극곰이 수영하는 모습을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북극곰 전용 수족관, 관람객이 원숭이를 관찰하도록 투명한 관찰용 창에 꿀을 발라둔 '원숭이산' 등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점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펭귄이 물속에서 마치 비행하듯이 멋지게 수영하는 모습을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싶던 사육사들은 공중에 투명한 아크릴 터널을 제작하고 물을 채웠습니다. 펭귄이 그곳을 지나가며 관람객 머리 위에서 수영을 했어요. 관람객들은 하늘을 쳐다보며 마치 펭귄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보는 것같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사히야마 동물원 펭귄관은 엄청난 인기를 끌게 돼요. 2009년에는 동물원의 이야기가 '펭귄을 날게 하라'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폐원 위기의 아사히야마 동물원 관람객은 28만 명에서 2006년 304만 명까지 증가했어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가야 하는 동물원으로 여겨집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에게 사랑받게 되자, 아사히야마 동물원을 코스로 하는 홋카이도 여행상품이 출시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도시 동물원의 변화가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지요. 65

예상치 못한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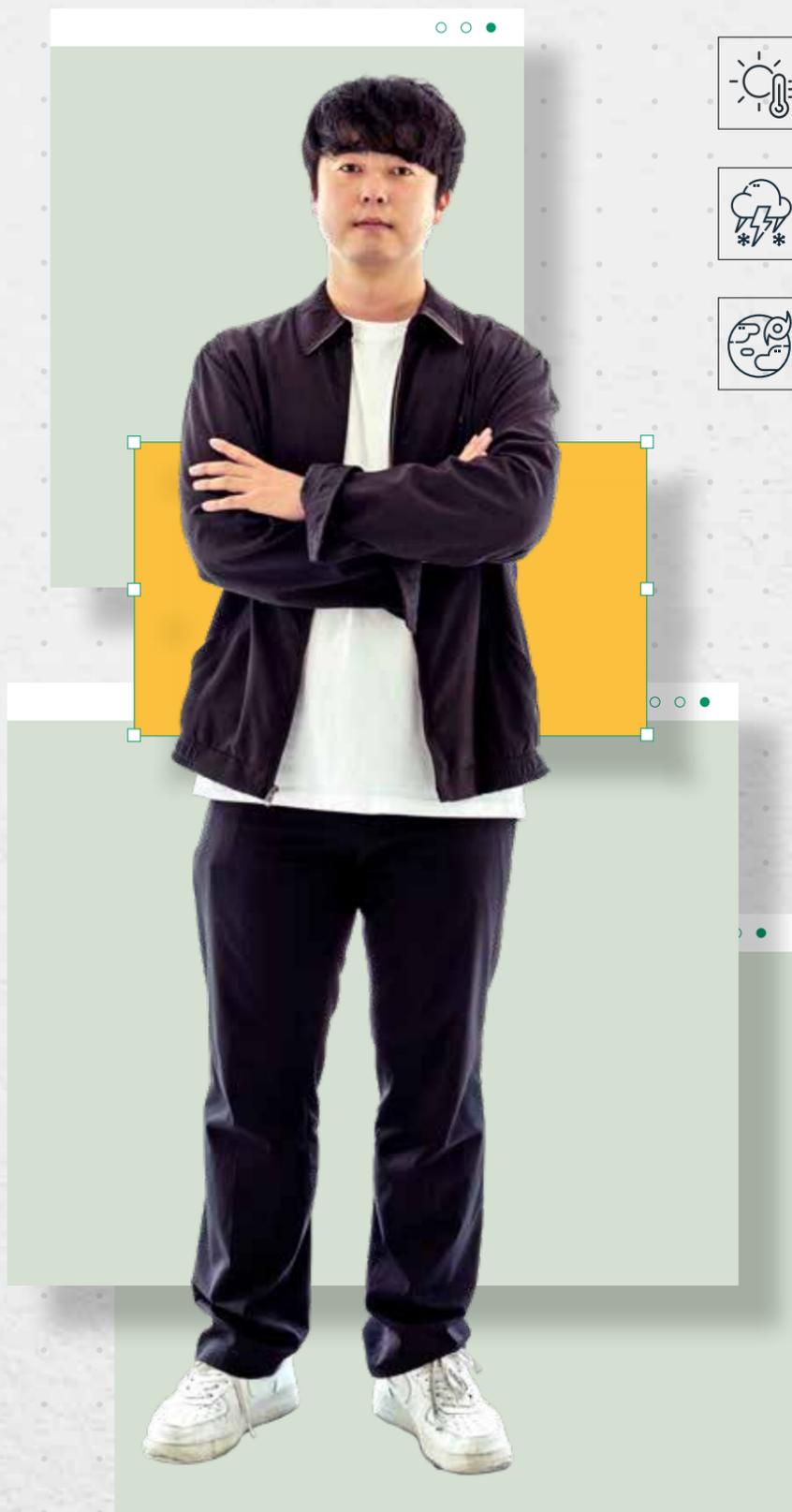
김대인 예비역 공군 대위



QR코드로 접속하면 인터뷰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북극곰이 살아갈 터전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 올해 추석에는 30도를 넘나드는 한여름 날씨였고 다가오는 겨울에는 최악의 한파가 찾아올거라는 예보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기상이변이 많은 시대에 기상예보사로 살아가는 예비역 공군 대위 김대인 씨를 만났다.

글 김현정 사진 권진혁 영상 최다영



Interview



○○○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예보사

현대사회에서 날씨는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농업, 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이고 관광, 교통 및 물류 그리고 각종 에너지 산업까지 날씨가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하다. 만일 예보된 날씨가 맞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겠지만 그로 인해 큰 곤경에 빠지는 사람 중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날씨를 예보한 기상예보사일 것이다. 군대에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에게 날씨를 알려주는 기상예보사로 일하고 있는 예비역 공군 대위 김대인 씨. “저는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마인드스위치앤코웨이브’에서 기상예보사 겸 운영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기상 회사 웨더뉴스와 협력하며 날씨 및 콘텐츠 사업 관련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예보사로서 날씨 애플리케이션, 웹페이지 등의 날씨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날씨 데이터 검토, 콘텐츠 관련 기상학적 조언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팀장으로서 특정 프로젝트와 서비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날씨를 미리 알고 대비했다더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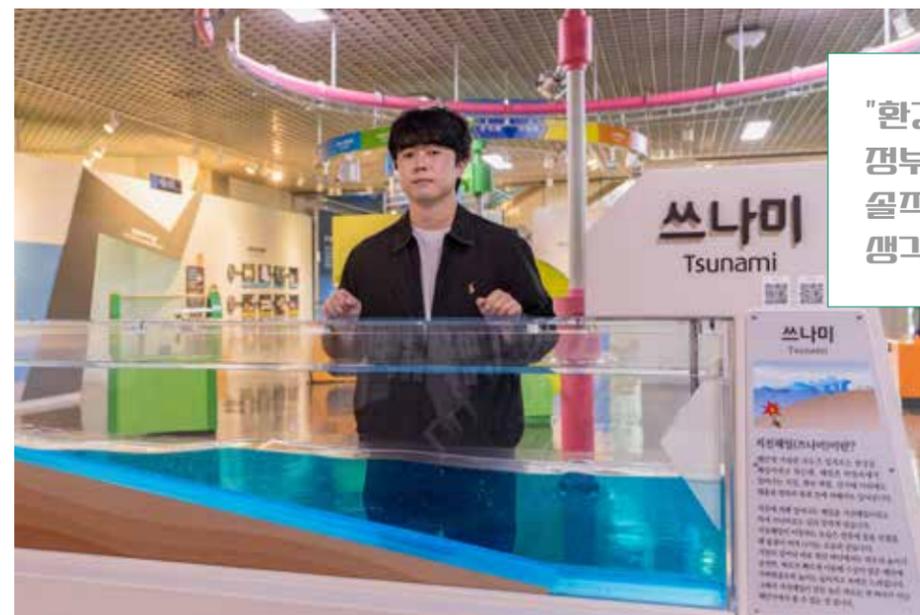
김대인 씨는 ‘대기학과’를 나와서 공군 기상장교를 지원하고, 전역해서도 기상예보사로서 날씨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세상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도 많은데 일관되게 날씨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는 나름의 이유를 들어보자.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날씨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태풍인지 호우였는지 비가 좀 길게 왔습니다. 덕분에 집 천장에도 물이 새고 온 집 안이 물바다가 되었죠. 물이 새는 곳을 보수를 해야 하는데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손을 못대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날씨가 좀 안 좋거나 비가 많이 오면 그때 생각도 나고,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날씨에 민감해진 것 같아요. 제가 날씨 관련 일을 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때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좀 미리 알 수 있다면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죠.”

○○●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철에 맞춰 꽃이 피고 단풍이 드는 나라라고 초등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지금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도무지 날씨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 같다. 다른 누구보다 더 기후위기에 대해서 실감할텐데 그 심각성에 대해 물어보았다. "네. 지금 봄이나 가을이 거의 사라지고 여름, 겨울이 많이 길어졌죠. 그래도 우리 세대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정작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인거죠. 아마 지금보다도 더 여름은 갈수록 더워질 거고, 겨울은 갈수록 한파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기상학자나 전문 기상기관에서도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호우나 태풍, 돌풍, 우박 등 기상이변이 많이 발생하겠죠. 이게 다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그 피해를 환경을 파괴한 당사자들인 우리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셈이죠. 각자 개인들도 환경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정부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솔직히 피해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AI가 해결책이 되어줄까?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는 각자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쉽지 않은 문제이다. 기상이변이 심해질수록 기상예보사로서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질텐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기상예보라는 게 현재의 데이터를 관측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모델을 작성하고 계산해서 결괏값을 생산하는데, 이 방대한



"환경에 대해서 전 세계가 정부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솔직히 피해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예보는 예보잖아요. 예측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꿈 틀리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nterview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AI의 도움을 빌리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AI의 주요 강점 중 하나는 대량의 데이터에서 특정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나 이상 기후 현상을 탐지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저도 관련 지식을 얻고자 대학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차후에는 저만의 AI를 활용한 기상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 열 번 정확해도 한 번 틀리면 욕먹는 자리

일기예보는 사람이 하든, AI의 힘을 빌리든 항상 정확하게 맞기기는 어렵다. 틀린 예보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들은 어디엔가 화를 내고 싶어할텐데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을까? "네. 이 자리가 원래 욕먹는 자리입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그로 인해 피해를 보면 화가 날만도 하지요. 그래도 너무 원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날씨를 미리 알려줘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게 동기였습니다. 저희도 정말 맞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말 그대로 예보는 예보잖아요. 예측을 하는 건데 예측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좀 틀리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극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뚜렷한 사계절을 위해서, 제철에 피는 꽃과 단풍을 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해야겠다. 김대인 기상예보사도 더욱 정확한 기상예보로 날씨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46



큰 꿈은 개진
조각마져 크다

지금도 여전히
나만의 꿈을
쫓아 달린다

김준식
예비역 공군 장사

어린 시절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왠지 가슴 설레며 내가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상상을 해본다. 저렇게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갈까? 그 설렘과 동경이 비행기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고 자신도 그 비행에 일조하고 싶어졌다. 민간 여객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노력하는 예비역 공군 중사 김준식 씨를 만났다.

글 김현정 사진 권진혁

Engineer



Kim Junsik

멘티: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멘토: 저는 5년간 공군에서 F-5 전투기 정비사로 근무했으며 중사로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항공기 엔지니어 김준식 대리입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해 A380 항공기 출발편과 도착편을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이상이 없는지 감항성 확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감항성은 항공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가능성을 뜻합니다.

멘티: 군대도 공군을 지원하셨고 지금도 비행기 관련 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멘토: 어렸을 때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면 저 비행기는 어떻게 나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함께 항상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또 제가 가진 꼼꼼한 성격과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희열과 보람을 느끼는 저의 모습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여행 또는 제주도에 가기 전에 비행기 타는 설렘을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누군가가 느낄 그 설렘을 지켜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Perfection

대충이라는 단어는 이 직업을 하는 동안 없애야 하며 반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항공정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능력이 있나요?

멘토: 우선 기계, 전자, 전기, 항공 등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작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데 영어는 필수입니다. 취업도 중요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항공기는 수없이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제가 7년 차인데도 아직도 계속 배운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멘티: 취업을 하는 데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도움이 되었나요?

멘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저를 담당하셨던 분이 열정이 넘치셔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역 후 집중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또 취업할 때 자소서를 첨삭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면접준비를 할 때에도 제가 사는 동네까지 오셔서 실제 면접을 하는 것처럼 1:1로 연습도 시켜주셨어요. 저도 그분의 열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준비했죠.

멘티: 막상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멘토: 항공기라는 기계는 사람처럼 어디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수백만 부품 속에서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하룻밤을 새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함이 해결되면서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마치고 제가 잘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어 줄 때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단점으로는 교대 근무라는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주말이나 남들이 쉴 때 출근을 해야 되는 일이 다반사고 밤낮이 바뀌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남들 일할 때 쉬는 것도 나름 행복입니다.

멘티: 어떤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나요?

멘토: 항공기 엔지니어가 하는 업무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대충이라는 단어는 이 직업을 하는 동안 없애야 하며 반복되는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비 매뉴얼과 항공기는 거의 99프로 이상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자기계발을 해야 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견해야 됩니다. 항공기 정비 업무는 매뉴얼이라는 근거를 토대로 행해지다 보니까 항상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한 신체와 체력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멘티: 일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멘토: 입사하고 인턴 시절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항공기가 나가기 위해 지상에서 활주로까지 밀어낸 후,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A380 항공기는 승객을 495명 탑승시킬 수 있는데 만석이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스케

줄이었으며 대체기도 없었고 그 결함이 해결되어야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원은 고군분투하며 작업을 하는데 승객들의 눈초리와 야유, 함성들이 난무하였습니다. 그 비행기는 결국 승객들을 다 태운 상태로 4시간 지연되었고 당시 안전부절못하는 제 모습과, 이런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다시 발생하였을 때 그런 시선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했던 인턴 시절 저의 고민이 기억이 납니다.

멘티: 장래 희망이나 목표에 대해 말해주세요.

멘토: 우선은 해외주재원으로 나가는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기종이 미주나 유럽노선으로 자주 가는 비행기인데, 비행기가 도착하는 공항에서도 비행기가 출발할 때 점검을 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 공항에 해외 주재원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근무하며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처럼 항공 엔지니어를 꿈꾸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을 집필하거나 직접적인 멘토로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멘티: 항공기 정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대군인분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멘토: 항공기 엔지니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기계에 관심이 있거나, 꼼꼼하고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으시다면 항공 산업은 미래 전망이 좋기 때문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자신합니다. ☺



외할아버지의 땡감

2024년 제대군인 취창업 성공 후기 공모전 우수상(요약본)

김정희 예비역 육군 대위

어릴 적 외갓집 마당에는 두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는데, 한 그루는 단감나무이고 또 다른 한 그루는 땡감나무였습니다. 어른들이 골라 준 단감만 먹었던 어린 저는 어느 날 마당에 떨어진 땡감을 우연히 베어먹었다가 허뿌리까지 얼얼해지는 땡은맛에 먹었던 감을 뉘뉘 뱉어내며 “이 맛도 없고 쓸모없는 감나무”라고 욕을 하며 저 땡감나무를 당장 잘라버리자고 외할아버지에게 떼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울며 떼쓰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던 외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많이 땡나? 살다보면 좋은 맛도 있지만, 땡은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데이. 이 땡감도 지금은 땡지만, 바람도 좀 맞고 시간을 버티다 보면 단감보다 더 맛있는 홍시도 될 수 있고, 껍감도 될 수 있는 기라.” 당시 너무 어렸던 저는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고, 그렇게 땡감은 제 기억 어딘가에 묻혀버렸습니다.

맨땅에 버려진 쓸모없는 땡감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자, 또 군인의 아내,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세 아이를 낳으며 정말 행복했지만, 동시에 양가에서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형편과 잦은 이사로 인해 저는 9년에 가까운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기간이 끝난 후 사단 직할대 정작과장으로 복직을 하였으나 대위 기간 진급 연차를 채우지 못했기에 진급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군 생활이 긴 육아휴직 후 복직이었기에 그 자체로 큰 도전이었으며, 군 생활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나 보통의 전역 전 군인들처럼 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할 여유가 제겐 없었습니다. 2022년 8월, 42살의 저는 그렇게 전역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으니 제게 아이들 키우는 것에 전념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그럴 생각이었고 전역 후 딱 2달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아이들과 남편만 바라보는 생활을 하던 중, 어느 순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공허한 마음에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마지막 군 생활에서 정작과장을 하며 배웠던 것들, 훈련을 준비하던 과정들과 주위 동료들, 힘든 일을 끝냈을 때의 성취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 인생에서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스스로가 땡은맛만 가득 남은 땡감이 된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삼십대에 열심히 노력해 조직에서 높은 성과와 전문성을 가진 40대가 되었는데, 저는 애

를 넣고 키우기만을 반복하며 경력 따윈 모두 날려버린 맨땅에 버려진 쓸모없는 땡감이 된 것 같았지요.

첫 창업 도전의 실패

한번 생긴 우울감은 한없이 깊은 자괴감과 무력감의 늪으로 저를 빠트렸습니다. 전역 후 살이 10kg이나 썰서, 운동을 해보고자 비싼 헬스 PT를 끊었지만 2번 나가고 나가지 않았고, 요즘 잘 나가는 유튜브 편집기술을 배우고자 컴퓨터 학원을 등록했었으나 일러스트레이션 기초 수업만 몇 번 듣고 지쳐 수업비만 날렸습니다. 분명 군 생활을 할 때의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날들이 길어지니 무엇이 진짜 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조바심과 한편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점 창업을 고민하다가 주택공사인 LH에서 주관하는 창업지원의 경력단절 여성 유형에 ‘독립서점’이라는 아이템으로 지원하여 최종 단계인 3차 프레젠테이션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선발만 되면 LH 소유의 상가에서 10년 동안 14평 기준 월 30만 원 선의 월세만 내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기에 사업 경험이 없는 제겐 초기 사업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군 생활 때 쌓은 문서작성 실력은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이나 PPT 발표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서점 창업을 준비하며 저는 제가 다시 살아가는 기분을 맞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에서 사업 경험이 없으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는 떨어졌고, 반드시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눈앞에서 엇어지니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세상을 볼 때는 성공을 위해서라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도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였었는데, 막상 창업 실패라는 단 한 번의 실패에도 휘청거릴 정도로 저는 멘탈과 체력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학교 청소부로 특수반 학생과의 인연

어둡고 긴 터널 속에 있던 어느 날, 아이의 교육정보를 찾다가 우연히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살던 집 바로 옆 고등학교의 구인공고를 보았습니다. 청소미화원 1명을 뽑는 공고였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청소부를 하다가 세계적인 락밴드 그룹의 리더가 된 너바나의 커트 코베인처럼 저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왠지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하면 저를 누르고 있는 어둡고 긴 터널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청소미화원 일을 꼭 해봐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상의하니 당연하다는 듯 남편은 반대했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인 오랜 친구 역시 고등학교 화장실이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몰라서 배부른 소리 한다며 꿈도 꾸지 말라고 제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전직교육원의 대전 전직지원센터의 팀장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역 직후부터 제게 꾸준히 전화를 주며 교육 소식이나 정보를 알려주시던 언니 같은 분이셨지만 저는 의례적으

로 대응을 할 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았었는데 그 날따라 외로운 마음에 당시의 고민과 상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전직지원팀장님 역시 장교 출신인 제가 청소일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시겠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던 팀장님은 짧으면서 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해보세요”

집과의 거리도 가깝고 일하는 시간 역시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2시 반에 끝나 육아에도 부담이 없으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꼭 그 일을 하고 싶다면 해보라고 응원의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남편과 상의 후 그렇게 저는 동네 고등학교 청소부로 전역 후 첫 취업을 하였습니다. 구인공고만 달랑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러 고등학교에 간 날 ‘모’ 자형 4층 건물을 청소하는 청소미화원이 달랑 1명이고, 그 자리에 지원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직원 화장실까지 화장실은 총 32개소였고, 그 밖에 복도나 현관 청소까지 제 일이었습니다. 취업 후 첫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고됐습니다. 육체노동은 자신 있다고 생각한 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으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일을 시작한 뒤 제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생활루틴이 생겼고, 또한, 저를 대하는 학교 사람들이 따뜻해서였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걸 알아서인지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은 제가 미숙하게 일해도 무척 고마워하시고, 처음엔 비교적 젊은 편인 청소미화원 아줌마를 신기하게 바라보던 학생들 역시 시간이 지나자 고맙다며 쪽지를 주거나 제게 인사를 하며 아는 체 하는 친구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 유독 저만 보면, “선생님 파이팅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고등학교 남학생과 다른 그 친구의 밝음이 무척 좋았지만, 며칠 저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정말 볼 때마다 변함없이 인사하는 모습에 고마우면서도 뭔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며가며 인사한 덕분에 친분이 쌓여 이름까지 알게 된 뒤에야, 이 친구가 특수반 소속이며 약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지도사에 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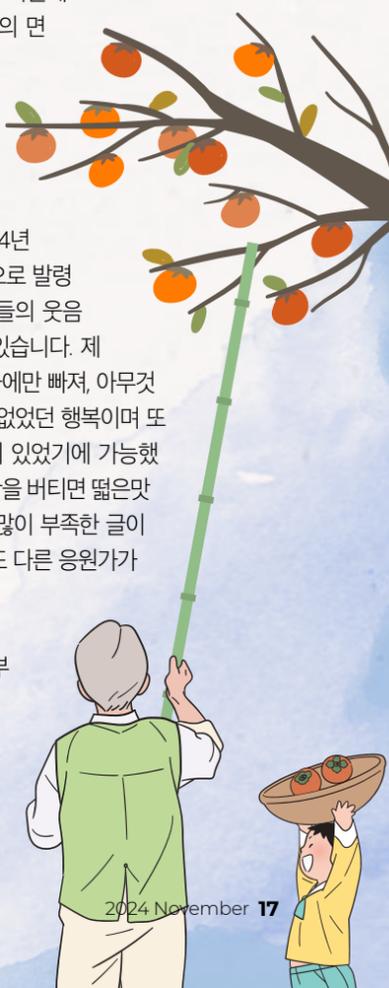
그 뒤 교실 이동이나 식사 이동 시 멈칫하거나 방황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었는데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신 어떤 선생님께서 제게 특수교육지도사를 준비해 보면 어떻겠느냐란 말을 던지셨습니다. 특수교육 선생님은 들어봤지만, 특수교육지도사란 직책은 너무 생소해서 저는 대학전공도 행정학이고 특수 쪽은 관련 자격증도 없으며, 지식도 없어서 힘들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선생님의 교육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직책으로서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직의 한 직렬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제게 작년 지역 교육청의 선발공고문까지 뽑아 주셨습니다. 그 뒤 교육공무직은 교육청마다 선발하는 방법이 다른데 제가 살던 지역의 교육청은 자격증과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시험과 면

접으로 뽑는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되던 시점에 저는 드디어 해보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로마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의 형벌처럼 치우고 뒤돌면 더러워지는 매일 반복적인 청소업이었지만, 그 일을 형벌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치 어려운 게임의 각 단계를 격파하듯이 더러운 곳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일을 하니 저도 모르게 제 안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그렇기에 다른 일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아보니 특수교육지도사 선발 시험과목은 국어, 국사, 사회였고 국어와 사회는 고등학교 수준 문제집을 풀고 국사는 유튜브에 올라온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를 설거지 같은 집안일 할 때 틀어놓고 들으며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필기시험은 11월 연말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부를 짧게 한 상태에서 맞이하는 첫 시험이기에 큰 긴장감 없이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알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살면서 시험에서 운이 따라줬던 적이 거의 없었던 저였기에 요행을 바라진 않았었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운 좋게 첫 필기시험에서 합격권인 2배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차 서류 전형과 2차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3차 면접과 인성 검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면접 경험이 거의 없던 제게 전직지원센터 팀장님께서 모의 면접을 봐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1차와 2차는 통과했지만, 마지막 3차 면접 앞에서 막막해하던 저에게 전직지원센터 팀장님의 제안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 같았습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저는 면접 시 예절과 시선 처리, 올바른 답변 방법 등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직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저는 최종 합격을 하였고 2024년 3월, 집에서 10분 거리의 유치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쓸모없는 땡감 같다는 자기비하에만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맞볼 수 없었던 행복이며 또한 전직지원센터의 조력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면 땡은맛이 열려져 단감이 되는 땡감처럼, 많이 부족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응원이 되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

※ 본 수기는 개인의 경험으로 정부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수기는 지면 관계상 내용이 다소 요약되었습니다.



자동차 엔진부품 개발 및 제조 전문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한국후꼬꾸(주)

한국후꼬꾸(주)는 자동차 엔진부품과 기타 고무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완성차시장은 물론 해외 유수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총 8개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로서 전 직원 정규직 채용, 무차입 경영 등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글 김현정 사진 권진혁

Φ FUKUKU KOREA CO.
방문객 환영합니다!



한국후꼬꾸(주)는 어떤 회사인가요?

○ **박재완 관리부장** 한국후꼬꾸(주)는 1987년 창립 이후 자동차 엔진의 크랭프샤프트에 장착되어 소음 및 진동을 저감시켜주는 Damper Pulley를 비롯하여 Wiper blade, Radiator packing 등 자동차 엔진부품과 기타 고무부품에 대한 개발연구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글로벌 제조기업입니다. 생산 제품은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르노삼성자동차, GM코리아, 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GM, FORD, FCA 등 북미, 유럽의 주요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입니다. 특히, 우리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을 다하기 위해서 2011년에 생산·제조 공장을 안산에서 보령으로 이전하여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전 직원 정규직 채용, 무차입 경영 등의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최근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과 뿌리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학습중심 선도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등 총 8개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대군인을 채용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 **박재완 관리부장** 사실 지금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군에서 장기복무한 인재들에 대해서 막연히 옛날 군대를 생각하고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군도 많이 현대화되고 체계화되어서 제대군인분들 중에 다양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PT를 하거나 각종 업무처리를 하는 능력, 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이 뛰어납니다. 제가 입사하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제대군인분들을 영입했는데, 이때 입사하신 제대군인분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채용자들이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 발휘와 이에 대한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제대군인 출신들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품성 등에 대한 평가와 인식개선 노력이 가장 중요한 극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대군인 채용 이후 책임감 등 정신 자세, 태도, 업무 능력 등 측면에서 다른 일반 경력직 사원들보다 월등하게 우수함을 확인하고 점차 채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박재완
관리부장



송정규
대리

회사에 입사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

○ **박재완 관리부장** 저는 육군인사병과 출신으로 20년 동안 인사 관련 업무를 하고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가스공사 이라크 사업단에 채용되어 8년 정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그러한 경력 덕분에인지 제대군인지원센터 추천으로 면접을 통해 이 회사에 취업되었습니다. 저 다음으로 제대군인으로 채용된 분이 사장님 수행기사님입니다. 그분은 기갑병과 중사 출신인데 체격도 건장하고 정말 성실합니다. 또 가장 최근에 채용된 분은 지금 중국 주재원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기업회계를 해본 경력자를 선발해야 하는데 그 분은 경험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면접을 잘 보고 입사해서 5개월 정도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역량을 보여주셔서 주재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제대군인으로 입사하신 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잘해주셨기에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대군인분들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 **송정규 대리** 저는 2013년에 포병 장교로 임관을 하고 2022년에 제대를 해서 여기에는 23년 6월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군무원을 준비하다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 채용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이곳에서 인사총무를 뽑는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에 힘든 점은 없었나요?

○ **송정규 대리** _____ 저는 포병 병과에서 전투 장교로 있었는데, 인사 쪽은 행정지원·병과지원 개념이다 보니 업무에 있어서는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장님께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잘 지도해 주셔서 적응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1년쯤 지나고 나니 이제 좀 적응이 되어서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주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군대가 아무래도 좀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부분이 있다보니 회사에서 일반 직원들과 얘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다나까'로 말하는 버릇은 남아있습니다.

군복무 경험이 회사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 **박재완 관리부장** _____ 물론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업무를 수행하고 일을 해나가면서 기획 및 계획 단계부터 실행, 평가, 환류(feed back) 단계까지 어떤 조직의 경력직보다도 병과학교에서 6개월 이상의 비교적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훈련과 실무 경험을 통해 체득한 능력은 사회 내 그 어떤 조직의 경력직보다도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무여건과 업무 추진 간에 어려

움과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인내하고 극복하는 능력 또한 다른 어떤 직군의 경력직 출신보다도 당연히 뛰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 **송정규 대리** _____ 보고서를 예로 들면, 군에서 사용하는 보고서와 회사에서 작성하는 보고서는 양식은 조금 다르지만 보고서 자체는 상급자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군생활을 하며 많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이 몸에 나뉠대로 배어 있어서 입사해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문서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군생활을 하며 익힌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무하면서 느낀 점과 자랑할 만한 점을 말해주세요.

○ **박재완 관리부장** _____ 저희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무차입 경영입니다. 부채가 없죠. 그만큼 재정이 건전하다는 말입니다. 또 저희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390명 정도 되는데 전원이 다 정규직입니다.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이 없어요.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회장님의 경영철학입니다. 예를 들면 2023년도에는 장애인 임직원 가족 동반 여행 사업(후원: 기업은행)과 임직원 아빠/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1박2일, 강원도)을 가졌습니다. 이는 임직원들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향상시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가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이었죠. 또한, 임직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제도(출산휴가 등) 이외에 자녀 육아 시간 확보를 위한 시간제 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과 특히, 격주 1회 팀 단위로 17시 정시 퇴근을 의무화한 'FKCI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인 회사 분위기가 아니라 유연한 근무환경과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더욱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 **송정규 대리** _____ 저도 회사생활에 대해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직장인은 회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이 군생활을 하던 친구들이나 저보다 먼저 전역한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1차적으로 충족이 됩니다. 또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저도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역을 앞둔 제대군인들에게 조언을 건넨다면?

○ **송정규 대리** _____ 전역을 결심하였다면 취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컴퓨터 자격증 같은 일반적인 자격증만 준비하면 안 됩니다. 보편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리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면 세무나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같이 보다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의 스펙을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요. 왜냐하면, 집중적인 공부가 필요한 군대 내에서 업무도 봐야 하고 당직 근무도 있고, 지금 북한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시간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자신의 꿈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고 필요한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완 관리부장** _____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원을 필요로 할 때 신입과 경력으로 나뉘잖아요. 아무래도 신입보다 경력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 자신의 군생활 중 유사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각 보직에 따라서 군수나 물품조달, 자재관리 쪽에 있었다면 경력으로 인정받기도 쉽고 입사해서도 업무에 적응하기도 쉽겠죠. 또 제대군인이라면 모두 중간관리자로서 각종 업무를 처리해 봤을 테니 그러한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좋지요. 그리고 앞서 송정규 대리가 말한 것처럼 원하는 직군에 맞는 자격증과 지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에 최선



-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국가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합당한 대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 현장을 깜짝 방문해 국가 안보에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0일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제대군인 주간을 맞아 제대군인의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표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하고, "제대군인이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 2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추진현황

1998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 확대·발전

2006년 동법 개정

-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취·창업 등 지원 시작

2012년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10월 제대군인 주간 지정·운영

- 2022년부터 10월 둘째 주 제대군인 주간 지정 법적 근거 마련
- 2023년부터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전개, 존중·감사 문화 확산

2024년 동법 개정

- 의무복무 제대군인 정의 조항 신설, 일부 대상자 취·창업 지원



향후 제대군인 지원 계획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군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가운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초급간부를 포함 약 25만여 명의 의무복무자와 국토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군 복무가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경력 인정
-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과 함께 제대군인 예우·문화 조성
- 미래 보훈인구 변화를 감안한 제대군인 정책 비전 수립
- * 관계부처 간 단계적으로 협력 추진



생성형 AI가 도와주는 마케팅, 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바람

스튜디오랩

STUDIO LAB

#GENCY

이미 AI가 많은 일을 해내는 시대가 되었고, 똑똑하게 활용하면 AI는 좋은 도구가 된다. 스튜디오랩은 AI가 탑재된 촬영 로봇을 통한 커머스 자동 촬영 및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서비스로 커머스 시장의 고충을 덜어 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했다.

글 이재경 사진 스튜디오랩 제공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스튜디오랩의 AI 솔루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유통업체 총매출 중 5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듯 이제는 온라인 매장 활용이 필수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촬영된 상품 사진과 잘 디자인된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판매자에게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스튜디오랩은 이 문제로 고민하는 패션 분야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를 위해 'GENCY', 'GENCY PB' 등의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외에도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수립하는 AI 솔루션 '브랜드캔버스', 비전 AI 기반 페이류 분류 솔루션 '딥스캔' 등을 선보였다.

스튜디오랩은 2021년 삼성전자의 사내 벤처로 강성훈 대표와 이재영 최고운영책임자가 설립했다. 삼성전자 재직 당시 사이드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무인 패션 스튜디오를 통해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판매자의 고충을 파악한 것이 시작이었다. 특히 'GENCY'는 지난해 말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1,000건 이상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고 30개 고객사와 함께하는 중이다.



상세 페이지 생성에는 'GENCY', 상업 촬영은 'GENCY PB'

IT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이나 많은 상품을 다루어야 하는 기업 내부 디자이너들에게 GENCY는 좋은 파트너다. 상품 사진들을 업로드하기만 하면 AI가 사진 속 의류 제품의 특징을 분석하여 제품에 가장 어울리는 순서와 디자인으로 배치해 15~30초 만에 상세 페이지를 생성한다. 셀러들은 자동 생성된 상세 페이지를 바로 다운받아 커머스 플랫폼에 등록하면 된다. 홍보 문구와 상품 설명도 AI를 통해 작성되며, 문구 추가 및 수정, 페이지 스타일과 이미지 변경 등을 지원해 원하는 방향의 상세 페이지를 간편하게 제작 가능하다.

GENCY를 이용해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려는데 상품 사진이 없다면 스튜디오랩의 'GENCY PB'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I 로봇이 피사체, 배경, 구도, 광량 등을 실시간 분석해 자동으로 카메라를 조정하여 전문 사진사와 흡사하게 촬영을 진행한다. 상세 페이지에 필요한 옷깃, 단추 등 세부 사항까지 GENCY PB가 판단하여 촬영하며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독성 높은 터치스크린을 도입하여 쉽게 이용 가능하다. 강남에 자체 스튜디오가 있으며 대여할 수도 있다.

전문가가 제작한 듯한 품질과 간편한 사용성

강 대표는 시장성을 면밀히 고려했다.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제작, 광고물 제작 등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고 패션 분야 위주의 상세 페이지 자동 생성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타격을 설정했다.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전문가의 작업물에 준하는 완성도를 보장하도록 실제 패션 커머스에서 사용하는 상세 페이지 패턴과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고 패션 전공자 50여 명의 데이터 라벨링을 거쳤다. 또한 자체 연구한 비전 AI와 생성형 AI 기술의 특허를 받았으며 세계적인 AI 기업인 오픈AI의 거대 언어 모델 GPT도 반영했다. 자체 제작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여 저작권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도록 했다.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발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점도 특징적이다. 상세 페이지가 해외에 수출될 저력을 갖춘 K-콘텐츠라고 인식한 것이다. 실제로 일본 업체에서 한국 쇼핑몰 스타일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문의하는 등 해외의 수요를 확인하기도 했다.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K-쇼핑몰 상세 페이지 자동 생성 솔루션

스튜디오랩은 2023 대한민국 인공지능대상에서 특별상 부문 스타트업상을 수상한 데 이어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4에서 쟁쟁한 글로벌 경쟁사들을 제치고 AI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여기에는 스튜디오랩의 솔루션이 가진 높은 사용성이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의 상품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전문 마케팅 콘텐츠인 상품 상세 페이지를 고품질 저비용으로 제공했기 때문이다. 현재 GENCY와 GENCY PB는 패션 분야에 집중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잠재력을 품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학습시켜 주얼리, 잡화 등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중고차 또는 웨딩 촬영 등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AWS가 주관한 AWS 정글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스튜디오랩은 예리한 기획력과 유일무이한 기술을 바탕으로 더 넓은 영역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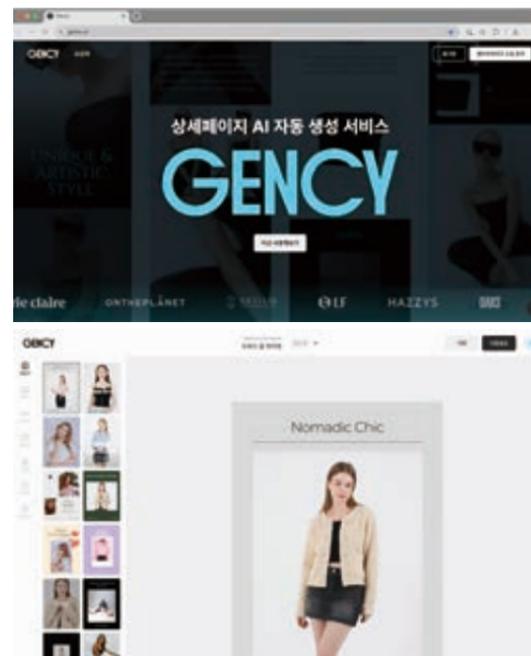


사진 출처 tvN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알아보는 근로자 문화예술제

정리 편집실
자료 근로복지공단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은 품어봤을 문화예술에 대한 로망! 근로자 문화예술제는 일상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예술을 통해 풀어내고 새로운 창의적 에너지로 재충전하는 축제의 장으로 채워지고 있다.

근로자들의
열정을 펼쳐 보일
꿈 같은 무대



고된 의사 생활 중의 즐거운 일탈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로병사'가 모여, 수만 가지 이야기가 녹아 있는 곳. 병원을 지키는 평범한 의사들이 있다. 이제 마흔에 접어든 5명의 '99즈'는 전문의 10년 차에도 여전히 수술장 앞에서 긴장을 감추지 못하고 인생 40년 차에도 아직 성장통을 겪는다. 병원장의 아들인 정원(유연석)은 병원의 수익금을 몰래 기부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아놓고 VIP 병동을 함께 맡아달라고 제안한다. 높은 연봉과 좋은 조건이 담긴 계약서에 모두 서명하려던 찰나, 석형(김대명)만이 유일하게 거절한다. 지정 주차에 개인 연구실까지 제안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석형의 조건은 단 한 가지. 밴드를 결성하는 것. 보컬을 원하는 송화(전미도)의 요구사항까지 수락하며 5명의 친구들은 밴드 '공룡농산'을 다시 결성한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병원에서도 주기적인 밴드 연습 시간을 가지며 그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옛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채워간다. 녹록지 않은 병원 생활 중 밴드 활동은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들만의 돌파구가 아니었을까?



Q. 근로자 문화예술제란?

근로자문화예술제는 근로자를 위한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 종합 행사로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분야별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만들어 창의적인 여가 활동을 향유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1980년 개최 이후 매회 4~5천 명의 근로자가 참가하고 있으며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과 열정을 펼치는 기회로 많은 근로자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해외 파견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근로자, 산재 근로자 및 실직일부터 6개월 이내인 사람이면 참가할 수 있다. 사업주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이거나 산재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가요·연극 분야의 근로자와 함께 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통령상을 비롯해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등 상장 및 상금 혜택이 주어진다.

Q. 개최 분야

근로자가요제	>	독창, 중창(가요, 가곡, 민요, 창작곡 등)
근로자연극제	>	단막극(90분 이내의 기성극/창작극/뮤지컬)
근로자미술제	>	회화, 서예 및 캘리그래피, 사진, 디자인 및 공예, 웹툰
근로자문학제	>	시, 소설, 극작, 수필

Q. 참가 자격

■ 근로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접수 시작일 기준)

- 해외 파견 근로자,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산재 근로자
- 참가신청일 기준 퇴사자로 퇴사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가요, 연극 분야는 단체(팀) 구성 시, 구성원이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 참여 가능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 사업주

■ 참여 제한자

- 기성전문가* 및 현직공무원 제외
- 프리랜서
- 최근 5년 이내 각 세부분야 금상 이상 수상자는 동일 분야 참가 불가
- 동거 친족 회사 재직 시 근로자성 인정 불가(다만, 근로관계 입증자료 제출 시 가능)
- 참가 분야와 관련하여 정부, 광역 자치단체 또는 민간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주최한 대회에서 5년 이내 최고상을 수상한 자

*기성전문가?

참가 분야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예술협회 회원에 등단한 자 또는 주관사 및 심사자가 전문가로 판단한 자는 참가 등이 제한될 수 있음

Passion & Fashion!

나만의 패션 스타일업

패션은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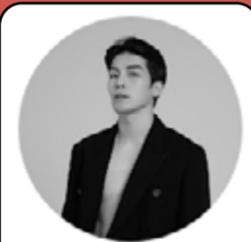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하면 일상의 즐거움도 만끽하고 생활의 활력도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옷 고르는 팁과 쇼핑 정보,

인생의 멋을 더해주는 패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멋진 꿈의 날개를 펼쳐보자.

패션 유튜브 추천

01



강스타일리스트

국내 남자 패션 유튜버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하는 채널이다. 구독자는 126만 명, 1천800여 개의 패션과 헤어 관련 동영상이 업로드되어 있다. 패션 입문자를 위한 아이템을 비롯하여 솔직한 리뷰, 패션 꿀팁, 패션 가이드, 헤어 & 그루밍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계절별 필수 옷, 아빠들을 빛나게 할 패션, 나에게 맞는 셔츠 등 계절별, 연령대별, 체형별 추천 아이템과 패션 정보도 다양하다. 어떤 옷을 사야 할지 고민될 때, 강스타일리스트에서 소개해 주는 필수 아이템을 참고해도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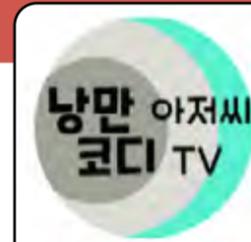
02



아웃도어큐레이터

등산/트레킹 전문 도서 '산키피디아' 저자이자 한국 아웃도어콘텐츠연구소 소장(대표)이 운영하는 채널이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및 공공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서울시) 행사 등을 통해 2만 명 이상을 리딩한 아웃도어 큐레이터가 운영하는 등산/트레킹 전문 채널로서 구독자는 5.49만 명, 동영상은 230여 개가 있다. 초보자 입문용 의류, 신발, 배낭에서부터 동호인들이 궁금해할 만한 장비 종류, 장단점, 구매 가이드, 산행지 추천 등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산행을 하면서 역사, 인문, 문화 등 지식도 쌓아가는 이색 하이킹 클럽의 탐방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03



남만아저씨코디TV

오랜 시간 패션VM 실무를 했고, 현재 중년 '남만아저씨'와 한 집에 살고 있는 코디네이터가 운영하는 채널이다. 주말엔 뭐 입지?, 주말 쇼핑 리뷰 등에서부터 옷 잘 입는 남자의 비밀, 컬러 공합, 모르면 후회할 남자 신발, '24 가을 겨울 주요 색상 등 멋진 패션 스타일을 꿈꾸는 남만아저씨들을 위한 영상들이 가득하다. 구독자 2.87만 명, 동영상 210여 개. 일명 '남만아저씨 옷빨살리기 코디네이터 만나' 씨가 남만아저씨들을 위한 특화된 코디 비법을 알려준다. "세상 모든 아저씨들이 멋지고 행복한 패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알찬 정보와 멋진 패션 팁을 전해 준다.

04



밀라논나 Milanonna

대한민국 최초의 밀라노 패션 유학생이자 명품 바이어, 무대의상 디자이너, 교수 등으로 활약해 온 '밀라노 할머니' 채널이다. 패션 정보뿐 아니라 70대의 건강한 일상, 상담 코너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에게 힐링 시간을 선물한다. 2019년 10월 '60대 명품바이어가 고른 자라ZARA 꿀템' 영상으로 채널 개설 한 달이 안 되어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4년 10월 현재 93.5만 명이 구독하고 있다. 밀라논나는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간 우호 증진에 힘쓴 공로로 2001년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명예기사 작위를 받기도 했다.



섬세한 테크닉으로 미각을 사로잡다 숙수 & 셰프

최근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흑백요리사>가 인기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과 그들의 요리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조선시대로 거슬러 가 그 시대의 셰프나 다름없었던 숙수라는 직업을 파헤쳐 보았다.



조선시대 궁궐의 밥상을 책임진 요리사 숙수



숙수(熟手)는 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궁중에 소속되어 요리하던 남성 궁중 요리사를 일컫는다. 특히 대령숙수(待令熟手)는 왕명을 기다리는 요리사라는 뜻으로, 다섯 끼의 식사 외에도 주안상, 다과 등을 대령하기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수라간의 최고 요리사였다. 숙수는 노비 신분이었으며,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노동강도는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궁궐 연회 날에는 수천 명분의 음식을 맡을 때도 있었다. 당시에는 음식이 약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노련한 조리 실력뿐 아니라 의학 지식까지 갖추기를 기대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숙수의 업무는 세분화되어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떡이나 한과 등을 담당하는 조과숙수, 소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숙수, 각각 국수·만두·죽을 담당하는 세면장, 상화병장, 죽장 등으로 분화되기도 했다. 시대가 변하면 직업에도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요리가 우리 일상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숙수는 자연스럽게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녹아들었다. 구한말에 조선왕조가 몰락하자 고종의 숙수였던 안순환이 궁중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아 '명월관'이라는 근대적 식당을 세우면서 궁중음식을 전파한 것이다. 잔치 음식을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임금의 명을 따라 궁중음식을 만들던 숙수라는 직업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만들던 요리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66

BACK TO THE JOB

99



레스토랑 요리의 완성도를 결정하다 셰프

셰프라는 직업은 일상에서 만나 보기는 쉽지 않지만, 각종 매체에서 자주 얼굴을 비춰 우리에게 꽤 친숙해졌다. 프랑스로 수장이라는 뜻을 가진 셰프는 주로 파인다이닝(fine dining) 레스토랑에서 많은 조리사들을 지휘하며 주방의 총 책임을 맡는 주방장을 뜻한다. 조선시대와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나 요리 전문가로서 주방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대령숙수를 비롯한 숙수들과 닮은 면이 보인다. 셰프가 있는 레스토랑은 대개 분업이 이루어질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있다. 조리 파트를 구분하여 조리사들에게 업무를 배분하기도 한다. 총주방장인 셰프는 요리를 직접 하기보다는 메뉴를 개발하고 음식의 간 및 익힘 정도를 파악하여 조절하며 식재료를 선택하고 플레이팅을 결정하는 등 레스토랑

메뉴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관여한다. 이를 위해 주방 조리사들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기도 한다. 복잡다단해진 현대 사회에서 셰프가 되는 길 또한 다양해졌으나 여전히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요리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전문교육기관 등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졸업 이후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한동안은 재료 손질만 맡다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스타지(stage)라는 견습 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수 셰프를 지나 최종적으로 셰프 자리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셰프는 많은 요리사에게 꿈의 자리다. 그렇듯 요리 관련 방송 프로그램들이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포화 속에 꽃핀 예술 도시,

경기 양평

생각이 한 뼘 깊어지는 계절이 왔다.
나무는 지난 여름의 무성한 잎을 떨구고 바람은 차가운 입김을 내뿜는 시간,
전쟁의 상흔과 폐허를 딛고 예술 향을 꽃 피운 양평으로 간다.

글 이경애 사진 양평군청 & 구하우스미술관 제공



v a n g p v e o n g

자유와 평화 의미를 되새기다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첫 번째 목적지는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항일의병 활동의 횡불이라 할 만한 지평의병과 6·25전쟁 당시 유엔군 역전의 토대가 된 지평리전투의 실상을 기록하고, 장렬히 산화해 간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2016년 건립된 기념관이다.

지평의병은 일제가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공포 후 지평 출신 포수 400여 명이 전국 최초로 일으킨 의병으로서, 강원과 충북 지방 의병 봉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지평리전투는 1951년 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미 제2사단 제23연대(프랑스 대대 배속)가 우리 국군과 함께 중공군 3개 사단 규모의 집중 공격에 맞서 승리를 거둔 전투다. 이후 UN군이 38도선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기념관 1층에는 지평의병과 지평리전투 전시실이 있고, 2층에는 평화기원실과 영상체험실이 있다. 기념관 바깥에는 지평리전투 참전군인 충훈비와 전승충훈비 등이 있다. 중공기자의 카메라에 포착된 흑백사진 속 병사들,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철모 등이 저릿한 아픔을 느끼게 한다. 숙연해진 마음을 안고 발길을 옮긴다.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지평로 357



세대를 초월하는 문학의 향기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우리 문학에 순수와 절제의 미학을 이룬 작가 황순원(1915~2000)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작품세계를 함께 음미할 수 있도록 양평군과 경희대학교가 힘을 모아 조성한 테마파크다. 이곳에는 선생의 대표 작품과 유물을 전시한 문학관과 소설 속 배경이 되는 공간들로 조성한 문학공원이 있다. 문학관 가까이에는 선생 내외분의 묘소도 있다.

‘국민 소설’로 일컬어지는 ‘소나기’는 시골 소년과 도시 소녀의 풋풋하고 애틋한 감정을 그린 단편소설로, 1953년 발표 이후 꾸준히 사랑을 받아왔다. 수숫단을 형상화한 모양의 문학관 중앙 홀에는 작가 연대기와 관련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 영상체험관에서는 소설 소나기를 모티브로 한 미디어 아트가 눈길을 사로잡으며, 작가 대표작을 알 수 있도록 구성된 실감 콘텐츠 영상체험관 또한 흥미진진하다.

문학공원에는 징검다리, 수숫단 오솔길, 소나기 광장, 사랑의 무대, 고백의 길 등이 있다.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곳곳에 있으며, 인공 소나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소나기광장도 있다. 누구에게나 풋풋한 첫사랑의 기억, 그 순수의 시절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곳, 소나기마을이다.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



민족을 위한 뜨거운 애국심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

몽양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민족지도자, 몽양 여운형 선생(1886~1947)의 삶을 올바르게 알리고 뜻을 널리 선양하고자 2011년 11월에 개관했다. 기념관에는 몽양 선생이 서거 당시 입고 계시던 혈의 장례식에 사용된 만장, 서울 계동 집에 있던 책상 등의 유품과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과 인접한 몽양 생가는 함양 여씨가 양평에 입향한 1715년(숙종 41년)에 지어진 것으로, 1886년 양평군 신원리 모골마을에서 출생한 몽양 선생이 부친 탈상을 끝내고 1908년 서울로 이사 가기 전까지 사신 곳이다. 6·25전쟁 때 소실된 것을 양평군민들이 그 터를 정비하고 기념비를 건립했으며, 2008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 것을 계기로 서거 64주년인 2011년에 복원하였다.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에 큰 획을 그은 세계적 인물, 몽양 여운형. 그는 중국, 소련, 동남아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외교관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동아시아 민족해방 운동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의 말과 실천, 그의 발자취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뜨거운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현대미술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곳 구하우스 미술관

집 같은 미술관, 구하우스 미술관은 세계적인 작가들의 컨템포러리 아트와 빈티지 가구로 구성된 컬렉션 미술관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구정순 관장이 예술에 대한 열정과 심미안으로 평생 수집해 온 500여 점의 작품을 ‘예술품은 소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 2016년에 개관하였다.

미술관은 본관, 별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민석(매스스터디스 소장) 건축가가 설계한 본관은 라이브러리, 리빙룸, 게스트룸 등 열 개의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도호, 데이비드 호크니 등 국내외 유명 작가들 작품과 스토리가 풍부한 회화·사진·영상·디자인 작품, 그리고 장 푸르베 등 유명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의 빈티지 가구가 조화롭게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3-4회 기획전·특별전을 연다. 11월 현재 ‘24th Collector’s Room: 젊은 7인 아트컬렉터의 이야기’를 전시 중이다. 이 전시는 2025년 1월 5일까지 이어진다. 별관에서는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양평 정원으로 선정(2021)된 용의 정원은 야생화 및 수목 속에 조각 작품이 어우러져 있어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45

●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무내미길 49-12

글을 잘 쓰고 싶으신가요?

그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표현하세요

글 전병석 시인, 교육자



Q 안녕하세요? 저는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상담과 취업 지원으로 곧 사회생활을 하게 될 사람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운동주 시인이나 청록파 시인을 동경했고, 아름다운 정서를 노래한 시인들 시를 즐겨 읽었습니다. 저도 군 생활 중에 느낀 전우애나 가족에 대한 고마움 등을 편지나 시로 진솔하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 실은 일기장 한 장도 채 메우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느낀 제 마음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A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신이 겪은 일이나 생각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면서 몇 시간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대화를 글로 옮기면 글쓰기가 된다. 그럼에도 글쓰기는 어렵다고 한다. 왜 그럴까? 말은 사라지지만 글은 사라지지 않고 남기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하고 의미가 깊고 품위가 있게 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까? 아니면 글쓰기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 때문일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시도해 보자.

자신에게 솔직하면

대화를 할 때에 본심이 들키거나 본심을 숨기면 더 듣거리게 된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막힘이 없다. 글쓰기도 마찬가지다. 글을 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된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제한하거나 검열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자신의 부끄러움

이나 못난 점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글을 쓰는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토요일 오후 / 아내가 / 물회가 먹고 싶다며 / 포항에 가자고 하였다 / 나는 / 물회도 별로고 / 운전도 싫어 / 핑계를 대었다 / 아, 아내를 / 사랑하지 않는구나 / 가슴이 철렁하여 / 프로야구가 없는 / 토요일 오후 / 아내와 포항물회를 먹었다 <권태기>

많이 읽으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잘 들음으로써 말을 잘하게 되는 것이다. 글쓰기도 그렇다. 글을 잘 쓰려면 먼저 남의 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한다. 책을 포함하여 신문, 잡지, 핸드폰 등 무엇이든 많이 읽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나름의 안목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고 샘물이 차듯 생각이 차오르게 된다.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쓸 방법이 없다. 책

에서 좋은 문장이나 구절을 만나면 메모하고 흉내를 내고 내 글에 녹여 써보면 표현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올라간다.

자주 쓰면

대화는 자주 하다 보면 느다. 어릴 때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만나보면 엄청 이야기꾼이 되어 있다. 그래서 물어보면 직업상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자신을 변하게 했다고 말한다. 글쓰기도 그렇다. 낙서든 메일이든, 수필이든, 일기든 가리지 말고 매일 써야 한다. 매일 쓰다 보면 무조건 늘게 되어 있다. 점점 길어도 늘어나고 사유도 깊어지고 감정도 섬세하게 된다. 매일 이기는 장사가 없듯이 매일 쓰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매일 쓰려면 자연히 주변 사람과 세상과 자연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보면 쓸거리는 넘친다.

꽃으로 살고 싶다 / 장미는 아니고 / 모란 동백도 아니다 / 쪼그려 앉아야 다정한 / 햇살이 없어도 환한 / 채송화로 살고 싶다 / 연탄구멍처럼 울망졸망 엉켜 자던 / 그 시절 우리네 얼굴 같은 / 당신 마음 한편을 밝히는 / 노랑 자주 분홍 흰색의 /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 채송화로 살고 싶다 <채송화>

풍성하게 경험하면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면 그 말은 힘이 있고 생생하고 감동도 크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면 암전하던 사람도 자신감이 넘치고 이야기도 길어진다. 그것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약간의 과장이나 상상이 보태어지면 재미도 커진다. 글쓰기도 그렇다.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은 다양한 경험, 여행을 많이 하면 좋다. 누군가는 ‘글은 발로 쓰는 것이다’라고도 하였다. 호기심으로 떠나고 만나고 부딪쳐 보자. 글을 마무리하면, 잘 쓴 글이 있다기보다 좋은 글이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오롯이 나타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글은 없다. 잘 쓰겠다는 욕심을 내려놓으면 쉬워진다.

장미는 / 고운 생각을 할 때 / 꽃이 피어나고 / 미운 생각을 할 때 / 가시가 돌아난다 / 당신은 어떤가요 / 꽃이 많은가요 / 가시가 많은가요 <장미> ㉞

◆ 글쓴이 소개

시인, 교육자. 시집 『그때는 당신이 계셨고 지금은 내가 있습니다』, 『구두를 벗다』, 『천변 왕버들』, 『화본역』, 『우리는 한 번도 초라하지 않았으니까』 등을 썼다. 현재 경서중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통신보안! 통신보안!

각색/그림 최승춘
icartoonist@naver.com



비움으로 채우는 하루 11월 29일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이라는 기념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모두가 저렴한 물건을 노리는 ‘블랙프라이데이’ 문화에 맞서는 특별한 날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기념일은 왠지 낯설지만, 오히려 동참하기에 더 쉬울지도 모른다.

정리 편집실



1

들뜨는 연말, 무분별한 소비주의를 돌아보다

2024년의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11월 29일이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기 때문에 매년 날짜가 변동된다. 많은 날짜 중에서 추수감사절 다음 날로 정해진 이유는 이맘때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선물을 챙기기 위해 소비가 증가하면서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로 불리는 대대적 할인 행사가 미국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블랙프라이데이가 되면 사람들은 할인에 혹해 사지 않아도 될 것까지 전투적으로 사들인다.

이러한 소비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1992년 캐나다의 광고업계 종사자 테드 데이브가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자신이 만드는 광고가 사람들을 끊임없이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이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의 제안으로 매해 전개되고 있다.

11 Nov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1월 넷째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다음 날
=블랙프라이데이 vs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2

블랙프라이데이의 어두운 진실

축제를 방불케 하는 블랙프라이데이는 누군가에게는 즐거운 날이겠지만, 환경 면에서는 부정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다. 우선 할인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도 않을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서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다. 전자제품 등은 폐기 시 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닐, 스티로폼, 플라스틱 등의 포장재로 인한 오염도 무시할 수 없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온라인으로까지 확장되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유통하도록 만들고 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물류 운송량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주문된 물품을 모두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과로하게 되고, 온라인 판매로 인해 수많은 물품을 전 세계적으로 배송하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여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 지구에도, 우리에게도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날이다.



3

소비를 거부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날에 진행되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 캠페인은 그래서 뜻깊다. 이날에는 말 그대로 물건 구매를 하지 않으면 된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소비를 줄일 수도 있다. 물건을 사지 않는 것 자체는 바로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므로, 쇼핑물 앞에서 침묵 시위, 퍼포먼스, 거리 예술을 통해 캠페인을 알리기도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안적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프리건(Free-gan)’으로 불리는 이들은 쓰레기 더미로 뛰어든다. 소매상점의 쓰레기통에는 문구류나 세제 등 생필품도 있고,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할 수 없게 되었을 뿐 깨끗하게 포장되어 평범하게 소비가 가능한 음식들도 버려져 있다. 프리건은 이러한 물품들을 찾아서 소비하며 자본주의 산업화에 저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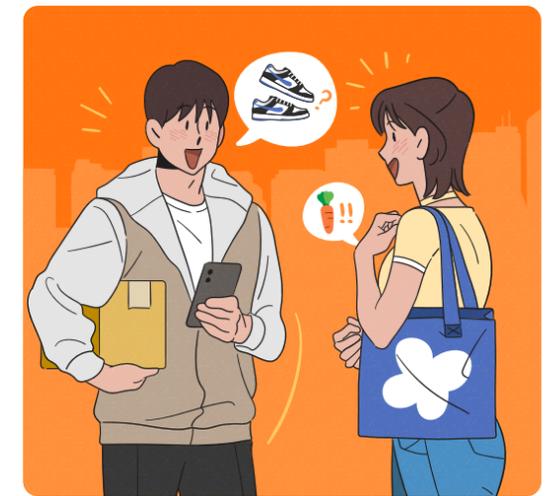


4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던 희망, 중고장터

우리가 프리건의 생활방식을 삶에 녹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의외로 일상 속 가까운 곳에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고장터다. 가까운 곳에서 직거래하는 것이 편하다면 ‘당근마켓’ 앱을 둘러보자. 지역 내 생활정보 공유 및 중고 거래 플랫폼이다. 찾는 물건이 당근마켓에 없다면 전국 단위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된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고 의류를 판매하고 싶으나 판매 과정이 번거롭다면 중고 의류 전문 리커머스 플랫폼 ‘차란’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앱을 통해 수거 신청만 하면 수거, 클리닝, 촬영, 판매, 배송까지 전 과정을 대신 진행해 준다. 중고장터를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비용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생산을 줄여 환경도 지킬 수 있으니,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기념하여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책으로 낭만 한 스펀

예술의 아름다움을 담은 추천 도서

예술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 했던가. 예술을 통해 우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기도 하고, 뜻밖의 감동을 받기도 한다. 예술이 가진 무한한 아름다움을 마주할 수 있는 도서 3가지를 소개한다.



영혼의 미술관

알랭 드 보통, 존 암스트롱 | 문학동네
알랭 드 보통이 미술사가 존 암스트롱과 대화하며 직접 엄선한 전 시대의 빼어난 예술작품 140여 점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듬어 안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치유 기능을 저자 특유의 철학적 글쓰기를 통해서 내려간다.



아무튼 클래식

김호경 | 코난북스
음악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작가가 클래식의 세계를 따뜻하게 풀어낸다. 대가들에 대한 찬탄과 명곡에 대한 칭송에서 그치지 않고 음악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음악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등 클래식을 사랑하는 기쁨을 생생히 전달한다.



화가가 사랑한 밤

정우철 | 오후의서재
전시 해설가 정우철 도슨트가 아름다운 밤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엄선해 그 안에 담긴 화가들의 사연과 배경, 눈물과 사랑을 그려낸다. 미술관에서 직접 듣는 것처럼 현장감 넘치는 해설은 독자로 하여금 화가들의 삶과 특별한 순간에 한 발짝 더 다가서도록 이끈다.

SK NEW SCHOOL 2025년 신입생 모집 (2024. 12. 1. ~ 12. 14.)

무스펙·무경력·비전공자도 OK!

전공/정원	SK 설립 사회공헌재단
조리과 20명	장학지원 할 30~90만원
MO과 20명	교육비 0원
자동차반도체과 10명	교재·장비·재료 제공 100%
지원 자격	'21~'23년 평균 취업률 98%
20~30대 청년 고졸학교 졸업(예정) 이상 학력	
사회적배려대상자, 중위소득 120%이하 세대	

독자퀴즈

가요, 문학, 미술, 연극 등 창의적인 여가 활동을 향유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내 유일의 근로자를 위한 문화예술 종합 행사는?

-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② 고용영향평가제도
- ③ 근로자 문화예술제 ④ 실업크레딧 지원

※ 11월 20일까지 정답과 이름, 주소, 연락처를 리:스펙 제대군인 담당자 이메일(seung29@korea.kr)로 보내 주시기거나 웹진(<http://vnet-magazine.kr>)에서 직접 참여해 주세요. (당첨 결과 문자 통지)

QUIZ

2024년 10월호 독자퀴즈 당첨자

나원갑(서울 관악), **이민희**(광주 광산),
이원균(전남 나주), **이재원**(경북 포항),
황성은(전북 전주)

※ 당첨되신 분께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3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 10월호 정답 ①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사업

11월 6·25 전쟁영웅

동료들을 위해 수류탄을 안고 전사한 인천상륙작전의 영웅

미국 해병 중위 **발도메로 로페즈** 
1925. 8. 23.~1950. 9. 15. **Baldomero Lopez**

1950년 9월 15일 미국 해병1사단 5연대 1대대 A중대 소대장으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어 소대원들과 함께 해안에 상륙한 그는 진두에서 용감하게 사다리에 올라 방벽을 넘었다. 이후 북한군 병커에 수류탄을 투척하려던 중 적탄에 맞았고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서 떨어뜨린 수류탄을 몸으로 끌어안아 자신을 희생했다.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 Story

1947년 6월 6일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후 해병대 소위로 임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에 투입, 해안방벽 사다리를 넘는 사진의 주인공
1951년 8월 30일 미합중국 명예훈장, 2023년 4월 25일 태극무공훈장 수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